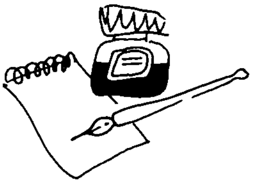
편집후기



특수건물의 안전점검과 화재보험업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재난없는 밝고 명랑한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화보협회로서는 1986년이 매우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되고 있다.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압력에 따라 기 진출한 2개의 미국계 손해보험지사가 국내 보험회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화재보험 풀 배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업계등 일부에서는 풀을 해체하자는 여론이 일고있는가 하면 이로인해 협회의 방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화보협회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최첨단 방재 시험소를 부설기관으로 설립,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국내 방재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약하게된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근 산업체 전반에 걸쳐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시점에서 본다면 화보협회의 역할은 사실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은 꾸준히, 그리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밖에 없는일이다. 이러한 다짐과 함께 평소 화보협회의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특수건물 소유주를 비롯, 「방재와 보험」의 애독자, 그리고 옥고를 주신 집필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 〈洪〉

교회의 종소리가 가까이 들리는가 싶으면 어느샌가 연말을 알리는 메시지들이 날아 든다.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은 늘 그러했듯이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덧없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도 그러하겠지만 元旦에 세워놓은 一年之計의 헛됨에서 더욱 그것을 느낀다. 다행히도 주위로부터 들려오는 「忘年」의 부르짖음들이 조금의 安慰를 던져주긴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역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방재와 보험」 겨울호가 애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즈음에는 후회없는 결실을 위하여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이다.

'87년에도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叱正을 바라며, 옥고를 주신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를 올린다. 〈崔〉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읍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화재현장 목격담
○시 · 수필 · 수기 · 꽁트 등 문예작품

□ **보낼곳**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통권 제32호〉 1986/겨울호 계간/비매품

등록/마 – 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1987년 1월 1일
인쇄/1986년 12월 31일
발행 겸 편집인/이대용
인쇄인/성전문화인쇄/강재수
사진식자/동광문화사
발 행 처/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 4

편집실/직통 782 – 8156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